

BUS#5: 무엇으로 성벽은 완성되는가?

■ 본문

느 13:15-18, 22

■ 시작 찬송가

8, 11, 12장
(통 9, 11, 22장)

■ 헌금 찬송가

305, 308, 310장
(통 405, 308, 410장)

▶ 세우다

1. 세움의 정의

- 1)세우다
(스 4:2)
- 2)회복하다, 재건하다
(수 6:26)
- 3)기초하다
(욥 3:8)
- 4)심다
(창 2:8)

2 성도와 세움과의 관계

- 1)복음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이다
(엡 2:20)
- 2)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벧전 2:5)
- 3)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었다
(골 2:6-7)
- 4)세움의 목적은 구원이다
(살전 5:9)

성벽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을 지금도 세워줍니다. 영원한 것들을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세우시는 것을 가르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핵심에는 보이는 것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완성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는 무엇인가를 완성해 가는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세워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후 4: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벽만큼 그 안이 중요합니다

건물은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학문과 삶의 존경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을 세워 가든, 무엇을 쌓아 가든지 그 내부가,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겉을 아무리 잘 지어도, 안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안이 건강하지 않는 인생을 좋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도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완성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습니다.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개혁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6장 마지막 부분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7장부터 13장까지는 사회의 개혁, 그리고 종교의 개혁, 신앙의 개혁, 사람의 개혁을 통해 예루살렘을 완성시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개혁만으로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개혁자들이 위대한 혁명, 완벽한 혁명을 꿈꾸며 나라를 개혁하였지만, 개혁만으로 좋은 나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만 바꾼다고 좋은 사회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느 4: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어 일을 하였음이라

내 안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영적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를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스룹바벨과 에스라 등,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루었던 개혁들이 무너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없을 때 제사장 엘리아십은 이방 사람이며 암몬사람 도비야의 방을 성전 안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울러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로 보낼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혔고 적들과 내통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지키는 레위사람을 느헤미야가 비어있는 시기에 곡식과 기름을 주지 않고 성전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무너뜨렸습니다. 안식일에 성 안에서 장사할 뿐만 아니라 이방사람 두로 사람이 물고기와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모든 안식일에 거룩한 모습들을 다 깨어졌으며,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시 58:1-2

통치자들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나 인자들이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나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단순히 건축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성벽을 잘못 지어서 누가 디자인을 잘못해서, 재료를 잘못 사용해서가 아닙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왜 성벽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느헤미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까지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 3:18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수많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렇게 혼돈하고,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이유를 마음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개혁은 했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왔지만, 성벽은 완성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성벽이 아닌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

내 안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세우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졸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그들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환난과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내면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좋은 시설에 집어넣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개혁이 있다고 우리나라 갑자기 좋은 나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국민성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시스템만으로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개혁만으로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외적인 부분으로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고 마음이 변화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안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1930년 미국에서 시작된 슈퍼마켓은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공산국가인 유고슬라비아는 1960년대에 슈퍼마켓을 도입하였지만, 물자가 지원되지 않아 완전히 실패하였고, 정권이 무너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을 지원하고 조달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안이 채워지는 완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벽을 넘어서 성안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무너진 것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안을 채워주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안을 채워가고, 세워나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1서 2: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 채우다

1. 채움의 정의

- 1)채우다
(창 1:22)
- 2)완성되다
(레 8:33)
- 3)성취하다
(왕상 8:15)
- 4)만족하다
(신 31:20)

2. 채우는 법

- 1)하나님의 은혜로
(사 27:5-6)
- 2)성령의 능력으로
(미 3:8)
- 3)여호와 사랑해야
(잠 8:21)
- 4)하나님이 채워 주셔야
(빌 4:19)
- 5)믿음으로
(눅 7:9-10)

오늘의 한마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 우리 안을 세우고 채웁시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